

# 영화치료가 조현병 환자의 우울 및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

이성은\*, 고성희\*\*  
전,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 The Effects of Cinema Therapy on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People with Schizophrenia

Sung Eun Lee\*, Sung Hee Ko\*\*  
Former Jeonbuk Dementia Management Center\*  
College of Nurs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영화치료가 조현병 환자의 우울과 자긍심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의 유사실험연구이다. J시에 소재한 정신보건시설 두 곳에서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원 40명을 실험군 20명, 대조군 20명으로 나누어 2010년 3-4월에 7회에 걸쳐 영화치료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영화치료를 적용받은 실험군이 적용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우울이 감소되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t=-4.17, p<.001$ ). 영화치료를 적용받은 실험군이 적용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자긍심이 증진되었으며, 그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t= 5.77, p<.001$ ). 따라서 영화치료가 조현병 환자의 우울과 자긍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용한 프로그램임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조현병, 영화치료, 유사실험연구, 우울, 자긍심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inema therapy on schizophrenia patients' depression and self esteem. The research design wa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two mental health facilities in J city(20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20 in the control group).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from March to April, 2010. The cinema therapy was conducted seven times. After the cinema therapy, depression of schizophrenia patients in experimental group was lowered compared with that of patients in control group, and the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 $t=-4.17, p<.001$ ). After the cinema therapy, self esteem of schizophrenia patients in experimental group was improved compared with that of patients in control group, and the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 5.77, p<.001$ ).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cinema therapy was a useful program leading positive effects on depression and self esteem in schizophrenia patients.

**Key Words** : Schizophrenia, Therapy, Depression, Self-Esteem

Received 21 August 2013, Revised 27 September 2013  
Accepted 20 October 2013  
Corresponding Author: Sung Hee Ko(Chon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jane@jbn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조현병은 대표적인 정신질환의 하나로 평생 유병률이 전체 인구의 약 1%로 비교적 높으며[1], 혼란 발병 시기는 성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발병하여[2], 점차 만성화되며 인격 및 정서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경향을 보인다[1]. 특히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에서 조현병 환자가 가장 많고 종합병원 정신과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70% 정도가 조현병 환자이다[3].

조현병은 사고, 정동,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장애를 초래하는 뇌기능장애이며, 공존병리로 흔하게 동반되는 증상은 우울이다[1]. 조현병의 경과에서 나타나는 우울증은 진단기준의 다양성, 정신병적 상태와 연관성이 있는 우울증의 측정 시기, 우울 상태의 정의에 따라 다양하지만 환자의 대략 25%에서 나타날 수 있어 우울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되고 있다[4].

조현병을 포함한 모든 정신질환자는 오랜 질병상태의 노출과 질병의 특성상 자긍심이 매우 낮다[5]. 자긍심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판단으로 인간의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자긍심은 개인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태도와 자신의 문제해결능력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며, 더 나아가 개인의 정서적 발달과 긍정적인 자아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6]. Smitherman[7]은 정신질환자들은 자긍심이 저하되어 있고, 자긍심이 낮은 경우 정신질환의 발병률이 높으며, 정신질환과 자긍심은 서로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고, 자긍심의 회복과 향상이 정신질환의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조현병 환자들은 증상의 반복적 재발이 발병 이전에 학습된 기술들의 회복을 방해하여 위축감과 자긍심의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자긍심의 상실은 정신질환의 발병률과 재발률을 높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조현병의 치료는 단순한 증상의 개선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에 따른 부작용이 작고 동반 증상인 우울과 자긍심의 저하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전국의 정신보건센터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다양한 정신사회적 재활치료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신질환의 만성적 경과에 따른 정신사회적 기능

손상을 최소화하고, 정신질환자들의 의존상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8]. 예를 들어 음악치료, 미술치료, 치료 레크리에이션, 문예치료, 무용동작치료, 작업치료, 독서치료, 원예치료 등이 있다.

특히 영화치료는 상업적 영화를 사용하는 특별한 치료법[9]으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질병이나 치료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10]. 영화치료에서의 영화는 대중과의 접근 방법이나 활용도가 쉽고 편리하며, 특별한 구매를 받지 않고 편리하게 집단 간의 의사소통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또한 영화는 인간의 삶을 소재로 다루어지는 여러 주제들로 인해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 일상의 문제들을 예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신질환의 현상들을 시청각적 이미지를 빌어 설명하고, 무엇보다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심리적 현상들을 보여주는 데 있어 일방적인 전달식보다 장점이 많다[10].

영화치료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11][12], 성인[13], 노인[14] 및 재소자[15], 베트남 참전자[16]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학교폭력, 대인관계, 우울, 분노, 자긍심 등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를 경감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소수에 불과한데,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불안감 감소와 대인관계 향상의 효과를 탐색하였다[17].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질환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울과 자긍심의 문제에 영화치료가 갖는 효과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조현병 환자에게 영화치료를 실시하여 우울과 자긍심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치료가 조현병 환자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둘째, 영화치료가 조현병 환자의 자긍심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1.3 연구가설

가설 1. 영화치료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우울점수가 낮을 것이다.

가설 2. 영화치료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긍심점수가 높을 것이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영화치료를 제공하여 우울과 자긍심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의 유사실험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J시 소재 정신보건시설 두 곳에서 주간재활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회원이다. 연구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첫째, 전반적 기능 평가점수(GAF)가 51점 이상이고 의사결정능력이 있으며, 정신병원 외래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자 둘째, 영화감상에 흥미가 있으며, 2시간정도의 영화 감상에 주의 집중이 가능한 자 셋째, 기관장이 프로그램 참여를 허락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자이다. G\*Power 3.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70, 효과크기 .80을 충족하는 표본의 수는 실험군 16명, 대조군 16명, 총 32명으로 산출되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시설 당 20명씩 총 40명을 선정하였으며, 탈락률 없이 전수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우울 측정도구

연구대상자의 우울은 Zung이 개발하고 Cho[18]가 변안한 자가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20 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로, 점수의 분포는 20~80점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ho[1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값이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값이 .81이었다.

#### 2.3.2 자긍심 측정도구

자긍심 측정도구는 Rosenberg가 개발하고 Jeon[19]이

변안한 것으로,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이다. 범위는 총 10점에서 4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긍심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값이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79이었다.

### 2.4 실험처치

영화치료는 인간의 삶과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영화 매체를 치료에 활용하는 기법으로 예술치료의 일종이다[13]. 본 연구에서는 정신과 의사 1인과 정신간호학 교수 1인의 자문을 받아 연구자가 개발한 7회기 영화치료 프로그램을 말한다.

영화의 선정기준은 Hesley와 Hesley가 치료를 목적으로 영화를 선택하는 가이드라인[20]을 참고하여, '사인', '어바웃 어 보이', '케이-팩스', '뷰티풀 마인드', '아들의 방', '포레스트 검프', '아이엠 샘'의 7편을 선정하였다. 프로그램은 본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으며, 정신보건간호사 1명이 보조진행자로 참여하였다.

실험처치는 준비단계, 본단계, 정리단계의 세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 준비단계에서는 보조진행자가 대상자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본 연구자 또는 보조진행자가 대상자의 흥미 유발을 위한 방법으로 영화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였다. 그리고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둘째, 본 단계는 위명업, 영화편집부분 감상, 주제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위명업은 영화를 감상하도록 한 후 휴식시간을 가졌으며, 본 연구자가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과 흐름을 정리하기 위해 줄거리에 대해 서로 간단히 이야기 나누도록 5~10분을 배정하였다. 영화편집부분 감상에서는 주제토론에 앞서 치료목표에 의거, 다루어야 할 주요 장면을 사전에 선택하여 짧은 시간동안 다시 감상하도록 10분으로 구성하였다. 주제토론에서는 본 연구자가 영화별 치료 목표에 따라 사전에 작성한 토론 주제를 제시하여 문제해결 중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보조 진행자 한명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치료목표에 맞도록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도와주었다. 끝으로, 정리단계에서 본 연구자는 그날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정리를 통해 정서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마무리 할 수 있도록 5분으로 구성하였다.

### 2.5 자료수집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기 전 센터장에게 연구 목적, 방법을 설명한 후 허락을 받았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연구의 목적,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과 정보의 비밀 보장을 설명한 후 연구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서면동의를 받았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2월부터 2010년 4월에 걸쳐 매회 2시간 40분씩 총 7회 영화치료를 실시하였다. 실험군은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날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프로그램을 종결하는 날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대조군의 경우, 실험군의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는 주와 동일한 주에 사전 및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센터내에서 시행되는 주간재활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였다.

### 2.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검정은  $\chi^2$ -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가설검정은 t-test로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 2.7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정신질환자로서, 인권문제 등의 현실적인 제한으로 인하여 외부 평가자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일 지역에 국한된 임의표집을 실시한 연구이므로, 중재 효과를 전체 정신질환자에게 일반화시킬 수 없다.

## 3. 연구 결과

### 3.1 대상자 특성 및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증

#### 3.1.1 대상자 특성의 동질성 검증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실험군 20명, 대조군 20명으로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in Pre-test (N=40)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Cont.	$\chi^2/t$	p
		(n=20) n(%)	(n=20) n(%)		
Gender	Male	11(55)	8(40)	.342	.527
	Female	9(45)	12(60)		
Age (year)	20-29	5(25)	4(20)	.428	.807
	30-39	8(40)	7(35)		
	≥40	7(35)	9(45)		
	Mean	36.35(7.71)	37.90(7.98)		
Education	≤Elementary	3(15)	7(35)	2.489	.288
	Middle School	6(30)	6(30)		
	≥High School	11(55)	7(35)		
Marital Status	Married	4(20)	6(30)	.559	.756
	Divorced	5(25)	4(20)		
	Single	11(55)	10(50)		
Religion	Yes	11(55)	10(50)	.100	.752
	No	9(45)	10(50)		
Duration of Illness (year)	<10년	3(15)	2(10)	.277	.964
	10-15	8(40)	8(40)		
	15-20	6(30)	7(35)		
	>20	3(15)	3(15)		
	Mean	14.4(5.36)	15.3(5.37)		

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실험군에서 남자가 11명(55%), 여자는 9명(45%)이었고, 대조군에서는 남자는 8명(40%), 여자는 12명(60%)이었다( $\chi^2=.342$ ,  $p=.527$ ). 연령별 분포는 실험군은 20대 5명(25%), 30대 8명(40%), 40대 이상이 7명(35%)이었고, 대조군은 20대 4명(20%), 30대가 7명(35%), 40대 이상이 9명(45%)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실험군의 경우 36.35세, 대조군은 평균 37.90세 이었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63$ ,  $p=.536$ ). 교육정도별 분포는 실험군에서 초졸 이하가 3명(15%), 중졸이 6명(30%), 고졸이상 11명(55%)이었고, 대조군에서 초졸 이하가 7명(35%), 중졸이 6명(30%), 고졸 이상이 7명(35%)이었다( $\chi^2=2.489$ ,  $p=.288$ ). 결혼상태 분포는 실험군은 기혼 4명(20%), 이혼이 5명(25%)이었으며 미혼은 11명(55%)이었고, 대조군은 기혼 6명(30%), 이혼이 4명(20%)이었고, 미혼이 10명(50%)이었다( $\chi^2=.559$ ,  $p=.559$ ). 종교 유무별로 보면 실험군에서 종교가 있는 경우는 11명(55%), 종교 없음이 9명(45%)이었고, 대조군에서 종교 있음이 10명(50%), 종교

없음이 10명(50%)이었다( $\chi^2=.100, p=.752$ ).

대상자의 유병기간 분포를 보면 실험군에서 10년 미만 3명(15%), 10년~15년 미만 8명(40%), 15년~20년 미만 6명(30%), 20년 이상이 3명(15%)이었고, 대조군에서 10년 미만 2명(10%), 10년~15년 미만 8명(40%), 15년~20년 미만 7명(35%), 20년 이상이 3명(15%)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유병기간은 실험군의 경우 14.4년, 대조군은 평균 15.3년이었으며( $t=-.53, p=.599$ ),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 결과,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1.2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정

영화치료 전 두 집단이 우울과 자긍심에 대하여 동질한 집단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2]와 같이 우울 정도는 실험군은 49.70, 대조군은 48.45였으며,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44, p=.663$ ). 자긍심에서는 실험군 20.90, 대조군 20.65이었으며,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18, p=.860$ ).

<Table 2> Homogeneity of Dependent Variables in Pre-test(N = 40)

Variables	Exp.(n=20)	Cont.(n=20)	t	p
	M±SD	M±SD		
Depression	49.70±9.27	48.45±8.73	.44	.663
Self-esteem	20.90±4.54	20.65±4.38	.18	.860

## 3.2 가설 검정

### 3.2.1 제 1 가설 검정

‘영화치료를 적용받은 후 조현병 환자의 우울은 적용받지 않은 환자의 우울에 비해 낮을 것이다’라는 제 1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영화치료 적용을 받은 실험군과 영화치료 적용을 받지 않은 대조군의 우울 정도를 비교해 보면, 실험군은 사전측정치 49.70점이며 사후측정치는 38.10점으로 평균 11.60점이 감소하였고, 대조군은 사전측정치 48.45점이고 사후측정치는 48.55점으로 0.10점이 증가하여, 영화치료 적용을 받은 실험군의 우울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 $t=-4.17, p<.001$ ). 따라서 제 1가설은

지지되었다.

### 3.2.2 제 2 가설 검정

‘영화치료를 적용받은 후 조현병 환자의 자긍심은 적용받지 않은 환자의 자긍심에 비해 높을 것이다’라는 제 2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t-test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영화치료 적용을 받은 실험군은 영화치료 적용을 받지 않은 대조군과 자긍심의 정도를 비교해 보면, 실험군은 사전측정치 20.90점에 비해 사후측정치는 27.10점으로서 평균 6.20점이 증가하였고, 대조군의 사전측정치는 20.65점이었고 사후측정치는 19.75점으로서 평균 0.90점이 감소하여, 영화치료 적용을 받은 실험군의 자긍심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 $t= 5.77, p<.001$ ). 따라서 제 2가설은 지지되었다.

<Table 3> Comparison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N = 40)

Variables	Groups	pretest	posttest	post-pre	t	p
		M±SD	M±SD	M±SD		
Depression	Exp. (n=20)	49.70±9.27	38.10±7.33	-11.60±8.71	-4.17	<.001
	Cont. (n=20)	48.45±8.73	48.55±8.47	.10±8.56		
Self-esteem	Exp. (n=20)	20.90±4.54	27.10±4.00	6.20±4.27	5.77	<.001
	Cont. (n=20)	20.65±4.38	19.75±4.06	-.90±4.16		

## 4. 논의

영화치료가 조현병 환자의 우울과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수행한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영화치료 참여 후 조현병 환자의 우울 정도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우울은 기분장애 환자들만의 전유 증상은 아니며 정신질환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라 할 수 있다. Joo[21]는 조현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CES-D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척도를 사용하여 우울 정도를 측정된 결과, 최저 6점에서 48점까지 분포되어 있었으며 그중 절단점인 21점을 넘는 대상자들이 전체의 61.1%나 되었다

고 보고하였다. 우울한 대상자들은 우울한 기분 이외에 외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며 아무 일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하고 재미있거나 즐거운 일도 없으며 의욕이 줄어들고 만사를 귀찮아한다[22]. 조현병 환자의 우울은 병에 대한 절망과 미래에 대한 부정으로 나타났다[23]. Park과 Hong[15]은 영화치료가 분노, 우울 등과 같은 부정 감정을 해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영화치료는 정서, 인지, 행동 등 세 분야에 모두 효과가 있다고 했던 연구보고들[13][24]도 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영화치료는 환자들로 하여금 병에 대한 절망적인 정서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영화치료는 대인관계의 반응 양식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대상자들의 의사 표현이 활발해지고 내면세계에 대한 표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으며[17],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향상시켰다[11]. 타인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이나 억압된 정서를 푸는 ‘냉담’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정서적인 표현을 유도함으로써 대인관계에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따라서 영화치료를 참여하면서 경험한 카타르시스와 놀이적인 속성 등[13]이 기분을 변화시켜 정서적인 표현이 증진되며 대인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기회가 제공되므로 대인관계 치료와 동일한 효과를 냄으로써 우울 정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영화치료 참여 후 조현병 환자의 자긍심이 유의하게 증진되었다. 낮은 자긍심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감소시키고 감소된 적응력은 더욱 정신장애자의 자아기능을 약화시켜 자긍심을 저하시킬 수 있는 순환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25]. 더욱이 조현병은 대부분 만성적인 경과를 거치면서 자가간호결핍과 사회적, 직업적 역할장애로 인해 타 질환에 비해 자긍심과 삶의 질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조현병이 자긍심을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만성 조현병 환자의 낮은 자긍심은 반드시 간호중재가 필요한 영역이며, 영화치료는 간호중재의 새로운 분야라 할 수 있다. Frueh[16]는 베트남 전쟁 참전으로 정신적 상처를 받은 병사들을 대상으로 영화를 이용한 치료를 실시하여 병사들의 자긍심이 증진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본 연구도 이러한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영화치료는 영화속의 주인공에게 공감하고 동일시하는 과

정을 통해 치유적인 정서적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27], 자신의 취약점이나 한계를 수용하고 자신의 강점을 인정하게 되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수정하고 자신에 대한 가치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자긍심은 개인의 환경 내 중요한 타인의 태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술한 바 있듯이 영화치료가 대인관계 치료와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도 타인과의 관계 개선이 자긍심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사료된다.

위와 같이 본 연구는 조현병이라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우울양상과 자긍심 저하를 나타내고 있는 환자에게 영화라는 매체를 치료적인 도구로 사용한 결과, 영화치료가 연구대상자의 우울 감소와 자긍심 증진에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영화는 치료적인 도구로서 우울 정서와 자긍심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였다.

그러나 정신과 환자를 대상으로 영화치료를 다룬 연구가 많지 않아서 영화치료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추후에 행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영화의 선택, 영화 관람과 토의 시간의 비율, 토의 주제와 방법, 치료에 참여하는 적정 대상자의 수, 치료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적정 치료 횟수, 다른 의학진단명을 가진 대상자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도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영화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자가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자가보고식 질문지 이외의 자료수집방법을 사용하는 반복 연구도 요청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신간호학 연구 및 중재부분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집단을 구성하여 영화치료를 적용함으로써 연구대상의 폭을 넓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영화치료가 일반인들의 정서적 경험의 치유뿐만 아니라 조현병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셋째, 현재 영화치료는 특히 간호 분야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를 근거로 환자의 정신역동 및 정신질환의 특성을 잘 아는 간호사들이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치료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병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나 사회

복귀시설 등에서 영화치료를 적용한다면 만성적인 정신  
과적 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심리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중재할 수 있을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영화치료가 조현병 환자의 우울과 자긍심  
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의 유사 실험연구이다. 연구 결과, 영화치료가 조현  
병 환자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자긍심을 향상시키는데 효  
과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영화치료가 지역사회  
에서 조현병 환자들의 재활을 위한 유용한 치료적 도구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센터나 사회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환자뿐 아니라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다양한 의학진단명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영화치료를 실시한 후 사후검사  
만을 실시하였는데 중재를 한 뒤 어느 정도 시  
간까지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되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영화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자가보고식  
질문지 이외의 자료수집방법을 사용하는 연구  
도 요청된다.

## REFERENCES

- [1] Min, S. K., *Modern Psychiatry*, 5th ed., Seoul: Ilchokak, 2006.
- [2] Sadock BJ & Sadock VA., *Kaplan and Sadock's synopsis of psychiatry*, 10th ed.,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2007
- [3] Son, M. J., *Family education of schizophrenia patients*, Semire Psychological Health Center program proceeding, 2000.
- [4] Lee, H. J., The effect of group music therapy on the social func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out-patients with schizophrenia, Ph.D.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2011.
- [5] Kim, J. S. & Lim, Y. M., The effects of a self-esteem improvement program on self-esteem, depress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community dwelling patients with chronic schizophreni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9, No. 4, pp. 420-428, 2010.
- [6] Park, W. Y., A case study group art therapy designed to improve schizophrenic inpatients self esteem: Round LMT,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Vol. 6, No. 3, pp. 161-186, 2010.
- [7] Smitherman, C., *Nursing actions for health promotion*, Philadelphia: Davis Co., 1991.
- [8] Cho, S. O., The effect of ceramic art therapy on the anxiety,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Ph.D.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2009.
- [9] Dermer, S. B. & Hutchings, J. B., Utilizing movies in family therapy: Application for individuals, couples, and familie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Vol. 28, pp. 163-180, 2000.
- [10] Kim, J. W., *Mental health forum with cinema "Wide Awake"*, Kunsan Mental Health Center, 2009.
- [11] Kang, E. J. & Cheon, S. M., The effects of a group cinematherapy program on automatic thoughts and empathy rating scale for adolescents and analysis of therapeutic factors, *The Journal of Humanities*, Vol. 15, No. 1, pp. 213-234, 2010.
- [12] Kim, H. G., The development of interactive cinema therapy program for adolescents with school violence assault, *Studies in Humanities*, Vol. 29, pp. 325-350, 2011.
- [13] Kim, S., Lee, H. P., & Kwon, K. J., A study on therapeutic effectiveness of a cinematherapy program for improv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Vol. 27, No. 2, pp. 547-567, 2009.
- [14] Sim, C. S., Park, M. H., Kim, Y. M., & Kim, H. G., The development of interactive cinema therapy program for old people's depression (reminiscence

method), *Studies in Humanities*, Vol. 29, pp. 389-411, 2011.

[15] Park, Y. U. & Hong, C. H., A study on the effects of group therapy using cinema on improving female inmates' stress response and coping methods,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Vol. 7, No. 4, pp. 105-124, 2011.

[16] Frueh, B. C., Self-administrated exposure therapy by a vietnam veteran with PTSD,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 152, pp. 1831-1832, 1995.

[17] Yu, I. C. & Bae, J. A., Effects of cinema therapy on decreasing a sense of uneasiness and improv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cusing on schizophrenia patient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8, No. 8, pp. 104-110, 2009.

[18] Cho, Y. S., The effects of the husband's emotional support on the prevention of postpartum depression: Using an experimental teaching intervention, Ph.D.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1988.

[19] Jeon, B. J., Self-esteem ; A test of its measurability, *The Journal of Yonsei*, Vol. 11, pp. 109-129, 1974.

[20] Kim, S. & Ahn, C.Y., A pilot study on improv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rough cinematherap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7, No. 2, pp. 353-366, 2005.

[21] Joo, S. O., Effects of a forest walking program on weight loss and depression of female schizophrenia, Master's thesis, Eulji University, 2009.

[22]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Textbook of neuropsychiatry*, Seoul: Joongangmunhwasa, 2005.

[23] Kim, J. S., Ryu, J. A., Lee, J. B., & Seo, W. S., Risk factors and prevalence of depression in the patients of schizophrenia, *Yeungnam University Journal of Medicine*, Vol. 24, No. 2, pp. S296-S303, 2007.

[24] Schulenberg, S. E., Psychotherapy and movies : On using films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Contemporary Psychotherapy*, Vol. 33, No. 1, pp. 35-48, 2003.

[25] Yang, S. & Choi, Y. S., Lasting effects of grooming training in chronic schizophrenic

in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9, No. 3, pp. 368-380, 2000.

[26] Oh, K. O. et al., The effect of the Tai Chi exercise program on the physical function, self-esteem and social behavior of patients with chronic schizophrenia,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Vol. 17, No. 1, pp. 58-67, 2010.

[27] Kim, J. W., *Cinematherapy for schizophrenia patients*, Jeonbuk Maeumsarang Hospital Program Proceeding, 2004.

**이 성 은(Lee, Sung Eun)**



- 2000년 2월 : 군산간호대 간호과
- 2004년 2월 : 방송통신대학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10년 8월 :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석사)
- 전, 전북치매관리센터 사무국장
- 관심분야 : 정신간호
- E-Mail : ssun-97@hanmail.net

**고 성 희(Ko, Sung Hee)**



- 197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이학사)
- 197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석사)
- 199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이학박사)
- 1982년 4월 ~ 현재 :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 노인간호
- E-Mail : jane@jbnu.ac.kr